

사설

대학 강의실 된 템플스테이

중앙대학교에서 템플스테이를 교양 선택과목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불교인으로서도 놀랄 만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중앙대의 건학 이념이 특정 종교를 표방하지 않았다 해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늘날의 대학 특히 학부 과정은 학문 그 자체보다는 학문하는 방법 혹은 태도를 익히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중앙대의 결정은 시뮬라토 '튀는 행위'가 아니라 학문의 주체인 학생의 '사람됨'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중앙대의 계획은 '실용적'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다. 2박3일의 템플스테이와 6시간 봉사 활동을 하면 3학점을 인정한다는 것이 전부다. 따라서 그 의의만을 두고 호들갑을 떨거나

'역시 불교는 대단해'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 중요한 건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있다. 중앙대의 결정이 현명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걸 넘어 불교가 가야 할 길 중 현실한 한 길을 닦는 일이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가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채택된 데는 어떤 도그마도 거부하는 '선(禪)'의 정신과 보편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선의 정수를 체험하게 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종립대학인 동국대조차도 템플스테이는 계절학기 과목인 상태다. 이번 사례가 더욱 확대되고 뜻한 바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계종단 차원의 배려와 세심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한국 노인들은 죽고 싶다

'생로병사', '성주괴공'.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와 사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자연스런 생명 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는 죄악이나 형벌에 가까워지고 있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가장 괴로운 날이었을 것이다. '무르익은 삶'을 즐기는 게 아니라 '아직 죽지 못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61세 이상) 10만명 당 62명이 '자살'이라는 최악의 방식으로 삶을 마감한다고 한다. 숫자에 둔감한 사람들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전체 국민 자살률의 2.3배에 이르는 수치라면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지금 이 땅의 노인들 '불행지수'는 한국인 전체의 2.3배다.

노인 자살의 주 원인은 결국 '돈'이다. 생활고에 따른 소외감과 고독감이 자살의 주된 원인인 것이다. 물론 자녀들의 학대에 의한 자살도 있었지만, 그 또한 경제력과 무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고령자 채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노인 자살을 막을 수 없다. 노인이기 전에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그 노력은 생명 존엄을 일깨우는 것과 함께 '피난처' 제공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법률적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할 때다. 중생의 고통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 불교라는 종교의 존재이유다.

조계종 선원장회의·전국 선원수좌회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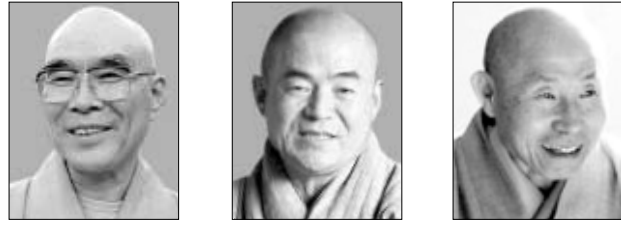
간화선 수행기풍 확립 나섰다

“선종은 돈오적...최상승” 조사선 우월성 옹호

선원장들 ‘간화선 수행체계’ 집필키로

조계종 선원장 스님들과 수좌회가 뜻을 모아 간화선 수행기풍 확립에 조응하 나섰고 있다.

조계종 선원장회의와 전국선원수좌회는 지난 8월 19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모임을 갖고 두 단체가 통합해 조사선 수행기풍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의견을 모았다. 선원장회의가 친목모임으로 계속 존속하되 수좌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한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종 수행체계 확립본사와 관련, 이 사업의 핵심인 (가칭) <간화선 수행체계> 집필에 나서기로 했다. 이 책의 집필진에는 선원장회의 회장 혜국스님, 봉화 각와



◇교우스님 ◇혜국스님 ◇무어스님

사 태백선원장 교우스님, 촉서사 주지 무어스님, 양평 상원사 선원장 의정스님이 포함됐다.

혜국 스님은 10월 2일 전화 통화에서 “종단에서 이론과 실질을 겸비한 선원장들이 집필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뜻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의 ‘간화선 위기론’ 등의 보도와 관련 선원장 스님들이 기존의 ‘묵빈대처’의 입장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교우스님은 월간 <법화와 설법> 10월호를 통해 최근 남방 위빠사나의 대두와 관련, “위빠사나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하는 수행법

“한국불교 禪기풍 전할것”

중국 선수행체험단 이한

중국 ‘선(禪) 수행 체험단’ 일행 10여명이 9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예방하고 한국 불교의 선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법장스님은 “한국 불교는 선을 버리고는 아무 것도 없다. 선 수행 교류를 통해 불교교류가 증진되고 상호간 이해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선 수행체험단장 루웨이(如瑞, 중국불교협회 부비서장) 스님은 “한국불교의 훌륭한 선문의 가풍과 선사들의 수행가풍을 이곳에 오지 못한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수행단은 9월 23일 입국해 29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한국 불교를 체험한 후 조계사, 관문사, 봉원사 등을 둘러보고 10월 2일 출국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지법, “이유없다” 기각

서산 부석사 간월암 주지 원웅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상대로 제기했던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홍환)는 “법장스님이 구족계를 비정상으로 받은 것이어서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없고 따라서 당선은 무효”라며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9월 26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1965년 구족계를 수지했고, 1971년 다시 수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신청인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고 다른 이후보자들도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한 점, 종단의 원로회의가 피신청인의 총무원장 선임을 추진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오히려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종단에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명우 기자



신홍사 등 87개 사찰 감사키로

조계종 중정감사특위, 10월 14~23일

조계종 중앙종회 중정감사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총무원 1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감사대상 사찰 및 감사반을 선정하고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감사대상 사찰은 신홍사·월정사 등 23개 교구본사, 도선사·연주암 등 특별분당사찰 7곳, 조계사·보문사·선분사 등 직영사찰 3곳과 관할사찰 중 2001년도 예산안 또는 2002년도 결산

기준 2억원 이상 사찰 33곳을 포함한 87개 사찰이다. 한명우 기자

11월 23일 포교사 고시

10월13일까지 원서 접수

제9회 조계종 포교사 자격고시가 11월 23일 동국대 등 국내 7개 고사장과 미국 LA관음사(현지시각 11월 22일)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원서 접수는 10월 13일까지. (02)720-7060 권형진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구성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팔공산 은해사 제1194돌 개산대재

미타도량 은해사는 서기 809년 신라 헌덕왕 원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셨으며, 한국불교의 새벽을 여신 원효(元曉)스님, 우리 문자의 기틀을 마련한 설총(薛聰)선생, 삼국유사를 지으신 일연성사(一然聖師)등 삼성현의 정신이 깃든 역사적 도량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시는 은해사 개산 1194돌을 맞이하여 개산대법회와 만등불사 및 지장보살 점안식, 가사불사 회향식을 가집니다.

무릇 복된 자리에 동참하시어 선한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불기 2547(2003)년 10월 12일(음 9. 17)

법회안내

- 오전 10시 : 지장보살 점안식
- 오전 11시 : 1194돌 개산대법회 (가사불사 회향식)
- 만 등 불사 (1인 1등 달기)

▶문의전화 : 은해사 ☎ 054)335-3318~9 FAX 054)335-0293, 원주실 054)335-5220
 ※ 은해사 1194돌 개산대재 행사가 부득이하게 10월 12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신도분들의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은해사 산사음악회

오후 1시 야외무대

▶ 동산반야회 — 한글염불의식

▶ 최윤희 — 도살풀이춤

▶ 경기민요보존회 — 가야금병창
 해금합주
 회심곡
 경기민요

▶ L.M.B.Singers — 찬미의 나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Yesterday
 향수
 희망의 나라로 등